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2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06:1-5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46장(새 31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 34번(스크린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주만물을 통해 보여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가 되어 항상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분초마다 깨어 있게 하시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자원함과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비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빌립보서 3:7-12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

- 봉 헌(offering) 361장(새 327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490장(새 433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8·15 광복절 행사참여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3. 오늘 친교시간 후 믿음속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망속 모임을 갖습니다.
(속장 : 송현진, 속원 : 김연진, 김영희, 김희상, 석명선, 신성화/박인숙, 송금자, 유동진/이진옥, 이경자, 이진국/김성애, 정태욱, 허춘희)
4. 말씀묵상집 9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13:1-7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아에 관련되어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달간 적용하고 함께 나눕시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말씀묵상〉 빌립보서 3:7-12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 사도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7-9절)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경험과 고백이 있습니까?
2. 바울의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향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0-12절)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결정은 그가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 가난에 시달려 한이 맺힌 사람은 그의 인생 최고의 가치를, 재물의 축적과 풍요로운 삶의 영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최고의 가치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바라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닙니다. 세상이 전부인 거 같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게 진정한 복인 양 착각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 10년, 20년 뒤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사도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고백은 비단 그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리라 믿었던 것들이 도리어 방해물이요, 오물과 같은 것임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얻고 그 안에서만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생명과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견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